

나의 꿈, 하늘까지

양태석 엮음
한민사 / A5신 / 208면 / 4000원

어린이들이 꿈과 미래에 관련된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야기들을 무려 225가지나 수록한 책.

수록된 글들은 동서양의 명저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훈이 될만한 글만을 가려 뽑았으며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썼다. 철학과 인생, 사랑과 우정, 꿈과 미래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어 어리광만 부리는 아이나 개구쟁이인 아이들에게 참된 인생의 본을 가르쳐준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의 주제에 걸맞는 교훈을 간결한 문체로 서술해 지루함을 떨쳐준다. 또한 간간이 삽화를 곁들여 내용의 이해를 도와준다.

비밀의 계단

캐롤라인 킨 지음 / 한국추리작가협회 엮음
고려원미디어 / A5신 / 202면 / 3500원

변호사의 외동딸 낸시 드루는 경찰들도 쫓아낼 때는 미스터리 사건을 푸는 비상한 재능을 타고나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어느날 밤마다 유령이 나오는 집에 사는 쌍둥이 자매가 유령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부탁을 한다. 쌍둥이 자매는 거대한 성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값비싼 물건이 차례차례 없어진다는 것이다.

유령의 집으로 직접 찾아간 낸시 드루는 살아있는 유령이 드나드는 비밀통로를 발견한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거미줄처럼 얽힌 함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낸시 드루는 모험을 좋아하고 추리력이 뛰어나 설록 홈즈와도 비견할만 하다.

사각형의 세계

플로라 니카씨오 지음 / 김홍래 옮김
서광사 / A5신 / 112면 / 4000원

수학의 기본원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수학동화. 수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주인공 '루이지'가 꿈 속에서 수학의 세계를 여행하며 수의 원리와 4연산, 도형, 입체의 세계를 배워 "재미없고 지긋지긋해하다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어린이"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되는 수학을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이야기 구성 방식에, 이해한 바를 확인해 보는 간단한 연습문제까지 곁들여 있어 어린이들을 재미있는 수학의 세계로 인도한다. 수학이란 학문의 깊이와 흥미를 맛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삽화와 도표도 풍부히 수록해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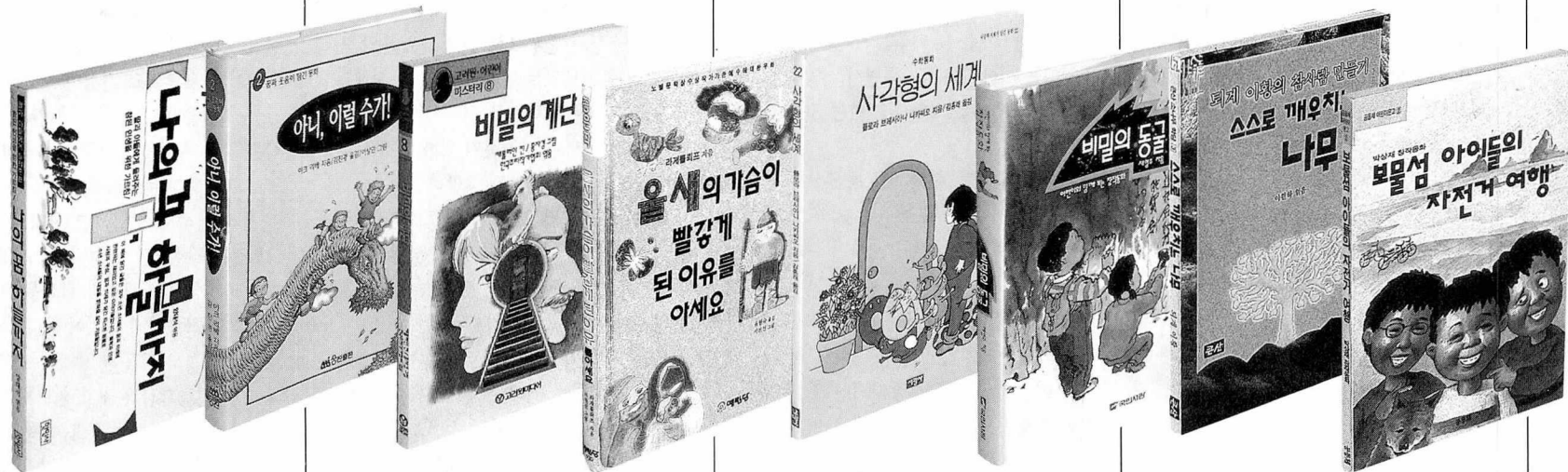
스스로 깨우치는 나무

이원하 지음
큰산 / A5신 / 152면 / 3800원

진정한 유학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퇴계 이황이 후학들에게 '참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편지형식으로 전하는 책.

제1장 '나를 돌아본다'는 퇴계의 유명한 「자성록」을 쉬운 말로 풀어쓴 것으로 스스로의 행동과 사람됨을 반성하는 그의 겸허한 생활태도를 짐작케한다. 제2장 '지도자가 되는 길'에 수록된 「성학십도」는 퇴계가 열일곱 살때 임금 선조를 위해 지은 것. 마지막 제3장에서 다룬 '퇴계의 발자취'는 퇴계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인격함양과 학문도야에 힘쓰도록 한다.

편지글로 전하는 퇴계의 가르침은 이해가 쉽고 다정한 정감을 느끼게 한다.



아니, 이럴 수가!

야크 리베 지음 / 김진경 옮김
웅진출판(주) / A5 / 240면 / 4800원

평범하지만 하나씩 비범한 재주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벌이는 사건을 유쾌하고 신선한 필치로 그린 동화집.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아이는 어느날 거울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살고있는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만난다. 또 물 밑을 걸어다니는 재주를 가진 아이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으러 과자와 손전등, 지도를 들고 바닷속 여행을 떠난다.

이밖에도 노래를 불러 마음의 벽을 깨뜨리는 아이, 벽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이, 개와 말하는 아이, 텔레비전으로 들어간 아이, 나이를 먹기 싫어하는 아이 등 총 12명의 아이들이 각 편마다 등장해 어린이들의 번득이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울새의 가슴이 빨갛게 된 이유를 아세요

셀마 라게를로프 지음 / 유현숙 옮김
예림당 / A5신 / 142면 / 5000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셀마 라게를로프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전설에 관련한 우화집.

온몸이 회색인 울새는 붉은 가슴털만 있으면 자신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느님께 달라고 조른다. 그러나 하느님은 "마음에 깃든 사랑의 불꽃으로 가슴이 붉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어느날 울새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가까이 날아가서 그 사람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아낸다. 그때 피 한방울이 울새의 가슴에 떨어져 가슴털을 빨갛게 물들인다. 울새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그린 「울새의 가슴이 빨갛게 된 이유를 아세요」 외에 「병사의 눈물」 「임금님과 야자나무」 「베드로의 눈물」 등이 수록됐다.

비밀의 동굴

채영주 지음
국민서관 / A5신 / 264면 / 8500원

꾸러기 삼총사의 사랑과 모험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그려낸 창작동화. 말쑥꾸러기 장신과 책읽기를 좋아하는 은우는 우연히 박물관 근처의 동굴로 굴러떨어졌다가 그곳에서 동굴 벽에 한자로 적힌 낙서와 이상한 칼을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출구를 찾아내 동굴을 탈출하지만 그 기이한 동굴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장신, 은우, 다혜는 용기를 내어 그 한자를 옮겨적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그것이 임진왜란 때 씌어졌으며 그 칼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문화재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때 칼을 빼들리려는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 장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어린이들에게 정의로운 삶과 친구들간의 우정이 소중한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동화.

보물섬 아이들의 자전거 여행

박상재 지음
공동체 / A5신 / 186면 / 3500원

우리 문화재를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바다로 안내하는 여행기.

찬우, 영욱, 진석은 경치 좋고 구경거리 많은 고장을 여행하기로 결심한다. 우선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일컬어진 회동 앞바다의 영등살에 가서 영등제를 구경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고 소리가 들려오는 명량대첩지를 찾는다. 또 삼별초의 민족혼이 서려있는 용장산성, 진돗개로 유명한 섬 진도, 천연기념물인 백조도래지 등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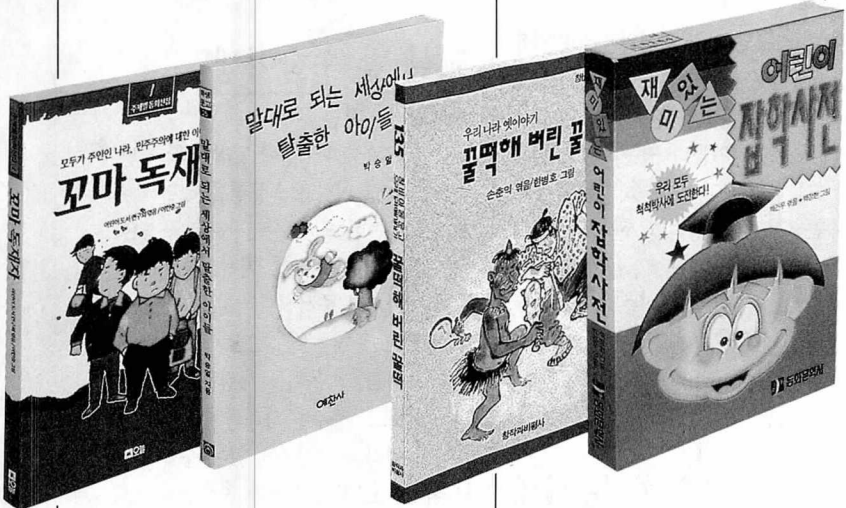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친구들과간에 우정도 굳건히 다지게 하는 유익한 여행담이다.

꼬마 독재자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 / 이한중 그림
오늘 / A5신 / 210면 / 3000원

학급에서 가장 힘이 센 건식이는 몇몇 친구들을 모아 클럽을 만들고는 허수아비 반장을 앞세워 반 전체가 마치 제멋인양 횡포를 부리며 힘없는 친구들을 괴롭힌다. 건식이의 횡포에 주눅들어 눈치만 보던 아이들은 마침내 하나로 뭉쳐 꼬마 독재자 건식이를 물리친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친근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참된 뜻을 일깨워주는 「꼬마 독재자」(박상규)를 비롯해 「참나무골 노루와 노랑이 여우」(조대현) 「청개구리」(이주홍) 「명월산의 너구리」(이원수) 「팔죽 할머니」(권정생) 등 단편동화 10편을 한데 모았다. '주제별 동화선집' 시리즈 첫췌권.



말대로 되는 세상에서 탈출한 아이들

박승일 지음
예천사 / A5신 / 202면 / 3500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어린이들에게 "그래서는 안되지"라는 교훈을 안겨주는 글.

「말대로 되는 세상에서 탈출한 아이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 하고 말하던 아이들이 '말대로 되는 세상'에 갔다는 이야기. 모든일이 말 한마디로 이뤄지는 나라에 갔다 온 아이들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고 쏟은 물은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는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가족들간의 화목과 사랑, 친구와의 우정을 다룬 22편의 이야기가 실렸다.

꿀떡해 버린 꿀떡

손춘익 엮음 / 한병호 그림
창작과비평사 / A5신 / 214면 / 3500원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지방을 비롯한 여러 고장에서 전해오는 전래동화들을 새롭게 엮었다.

막내가 졸깃졸깃한 시루떡을 들고 나가자 동네 개구장이들은 그 떡이 먹고 싶어 안달한다. 그중에 한 아이가 나서서 시루떡을 달떡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네모진 떡을 둥글게 베어먹는다. 그 다음엔 반달떡이라며 반조각이 되게 덩싹 물어서 삼킨다. 마지막으로 꿀떡이라며 눈감짝할 사이에 꿀떡 삼켜버린다. 해학이 넘치는 「꿀떡해 버린 꿀떡」을 비롯해 50여 편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서술된다. 동물들의 생김새를 두고 그럴 듯한 유래를 꾸미기도 해 조상들의 해학과 슬기를 느껴봄직 하다.

어린이 잡학사전

백건우 엮음 / 백정현 그림
동화문화사 / A5신 / 494면 / 7500원

잡학, 즉 다양한 분야에서 알아두어야 할 상식들을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춰 알기쉽게 설명한 책. 문화·문물·과학·기술·자연·우주·역사 등 인간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서도 알쏭달쏭하고 흥미로운 것만 골라 실어 어린이들이 읽으면 바로 공부로 연결되게 한다.

결혼은 왜 하는지, 사형제도는 언제 생겨났는지, 꿈은 왜 꾸는지, 광고란 무엇인지 등 흥미있는 내용들이 근 5백여 페이지에 걸쳐 꾸며져 있다. 특히, 모든 정보를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해가 쉽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가게 한다.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주는 유익한 사전이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 발행 취업예정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편집 취재기자로 첫발을!

◎ 24시간 자동응답안내 735-4450(100*)

편집교육을 국내최초로 본격화시킨 교육기관

1987년 출판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편집 실무교육을 연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편집실무교육안과 교재개발을 완료하여 1988년 3월 국내 최초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되었습니다.



강사와 학생간의 깊은 우대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출판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있으며 교육 진행중 학생들과 담임강사가 함께하는 1박2일 워크숍을 통하여 편집인으로서의 면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은 완전히 배제

본격적인 출판편집실무교육의 장으로 본원의 교육 성과를 인정하여 본원을 한국출판학회의 추천교육기관으로 선정(89.1.30)해 주었으며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에서는 편집인력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위촉(88.12.28)하였습니다.



각 반별로 담임강사가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교육내용 중 때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편집현장과 밀착된 교육체계

출판현장에서 필요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교육과 출판사, 재택소, 인쇄소 등 견학하여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정립하여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파한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생의 95%가 취업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과정별 잡지 단행본을 직접 기획 제작

체계적인 편집이론과 충분한 실습을 거친 후에 잡지, 단행본 등 기별 과정별로 시판중인 잡지, 단행본 등과 동일한 수료작품을 직접 기획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자출판 실무교육 실시
현직출판계 편집자나 처음으로 컴퓨터 편집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는 본원 정규과정일 경우 이수후 수강할 기본과정 컴퓨터에 대한 지식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왕스쿨

문의(代) 672-1841,2 FAX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